

중 · 고등학교 중국어교육의 개선 방안

- 경기도 교육을 중심으로 -

조 항 근(화홍고등학교 교사)

《 요 약 》

한국의 제1 수출국, 외환 보유고 세계 1위인 중국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 이기에 이제 우리에게 중국어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97 개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290여개 (79%)의 학교에서 중국어를 채택하고 있고, 3개의 공립 외고에서 중국어전공반이 개설되어 있다.

중학교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의 역할이 거의 없고, 대입수능에서 중국어 영역에 응시한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대입수능 위주로 학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중국어는 점점 흥미도 떨어지고, 심지어 중국어 수업이 자율학습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학교장에 의해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증감·운영하게 되면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첫째,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최소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제2외국어 점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언어 교육에 있어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중국어 교과 과정을 중3, 고1, 고2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학습 교재 및 보조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경시대회를 통한 중국어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국가발전, 중국어, 대입수능, 제2외국어, 인문사회계열, 교육과정, 경시대회, 공감대

I . 들어가는 말

1992년 한·중 양국의 국교수립 후,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FTA 체결협정으로 무역의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제1 무역 수출국인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G2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필자는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첫째,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중국어에 대한 선수 학습 경험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현저히 낮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외국어 고등학교의 중국어 전공 학생들 역시 상급 학년이 되면서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셋째,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이하 일반고)에서 3학년의 중국어 수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입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이유로 자율학습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2010학년도부터 각 학교의 학교장에 의해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증감·운영(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교육과정 관련 Q&A자료, 2009. 6. 11)하게 되면 중국어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넷째, 고등학생들에게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여서 중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계화 시대에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중학교, 일반고 및 외국어 고등학교(이하 외고)의 교육 현장을 통해 고찰해보고 중국어 교육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현행 중등 중국어 교육 과정의 현황을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대입수능 및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중학교와 일반고에서의 현황을 각각 고찰한 후 이를 비교하여 중학생들에 비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외고는 특수 목적고인 만큼 일반고와 분리하여 중국어 전공 학생들이 1학년 때에 비하여 3학년이 되어서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는 원인을 고찰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1장의 현황 고찰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교사에 의한 수업 개선 측면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중·고등학교와 외고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원시 중학교 2개교, 경기도 일반고 3개교, 경기도 S외고 학생들을 설문 조사하였으므로 이 연구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중국어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현행 중등중국어 교육과정 현황 고찰

1. 중학교 《생활중국어》 교육과정의 현황 고찰

‘일본 만화를 보고, 미국의 팝음악을 들으며,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이탈리아 피자를 먹고, 스타벅스 커피 가게로 간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가 점점 지구촌화되면서, 무역의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국가 간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외국어 교육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생활 외국어’ 교과를 중학교 교과재량활동의 선택 교과목 가운데 하나로 편성한 이후 현재 경기도 전체 516개교의 중학교(2009년 3월5일 기준) 중 97개교의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교육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학생들이 현재 사용하는 학습교재는 《생활중국어》(저자: 맹주익 외)인데 어휘는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국어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300 낱말 내외로 구성되었고, 문법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쉬운 기본 문법 사항만을 다루고 있으며, 입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교과이므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다.

‘생활 외국어’ 교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7개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제2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외국어과 교육과정. 제20쪽)

중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은 교과재량 시간(주당 2시간)을 통해 실시되는데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중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일반고 진학 후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중국어에 대한 선수 학습 경험’, ‘중국어 선택 이유’를 조사한 후 ‘흥미도’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대상은 수원시 소재 중학교 중 경제적 수준과 학업 성취도 수준이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M중학교 (80명)와 S중학교(80명) 3학년생 160명이며, 설문 조사와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중국어 선수학습경험을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1〉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의 중국어 선수학습경험

학교	중국어 학습 경험	학생수	백분율
M중학	유	16	20.0
	무	64	80.0
S중학	유	19	23.8
	무	61	76.2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2년간 지도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지, 학원,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중국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고, 소수의 학생은 중국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유학경험이 있거나, 방학 중 단기 연수를 다녀와서 상당한 회화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어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표 1〉과 같이 약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이전에 이미 중국어에 대한 선수학습 경험이 있었다.

둘째, 중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2〉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이유

중국어 선택 이유	인원	비율(%)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53	33.1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	98	61.3
내신관리를 위해서	7	4.4
기타	2	1.2

중학생들에게 중국어 이외에 다른 제2외국어도 있는데,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앞으로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61.3%),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3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는 곧 중국의 경제력이 높아져서 중국어의 역할이 그 만큼 커진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고, 이는 〈표 1〉의 선수학습 경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이 깊다.

셋째,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3〉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인원	비율(%)
매우 높다	32	20
높다	79	49.4
보통이다	31	19.4
낮다	15	9.4
매우 낮다	3	1.8

중학생들의 중국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표 3〉과 같이 ‘매우 높다’(20%)와 ‘높다’(49.4%)를 합하면 69.4%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어 교육의 미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1〉 ~ 〈표 3〉의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현황을 고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중학교에서 중국어를 학습하기 이전에 특히 초등학교 때 선수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는 중국 및 중국어에 대한 학습 열의가 그 만큼 뜨겁다는 의미이다.

둘째, 그 이유는 중국,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로 나타났는데, 중국,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것은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판단이라기보다 학부모들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영어와 함께 중국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국어에 대한 학습 흥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 부담이 없는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선수 학습을 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중학교에서의 중국어에 대한 학습 흥미도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앞으로 중국어 교육을 우수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다.

2. 일반계 고등학교 중국어 I 교육과정 현황 고찰

‘중국어 I’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초급 수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길러 간단한 말이나 글로써 중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중국어 I’의 교과 내용은 학생들이 ‘중국어 I’의 학습을 통해 배양한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목표 하에 일반고에서 제2외국어 교과로서 중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미 20년이 넘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는 367개의 고등학교 가운데 약 290여개(79%)의 학교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복수 채택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시 중학교처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7개 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최소 2개 이상의 제2외국어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2학년 공통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제2외국어 I 을 편성하여 2단위(주당 2시간), 혹은 3단위(주당 3시간)로 학습하게 한다. 3학년이 된 뒤에는 심화과정에 해당하는 제2외국어 II를 편성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과학과정의 학생들은 고교 2학년 때 배운 제2외국어 I 로 학습을 마치고, 3학년 때 제2외국어 II를 배우지 않기도 한다(H고, B고).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자연과학과정의 학생들이 제2외국어인 ‘중국어 I’을 고 2때 배우지 않고 3학년이 된 뒤에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다(M고).

그러나 실제로 일반고 중국어 수업시간에는 중학교 때의 중국어에 대한 높은 흥미도가 연계되지 못하고, 심지어 자율학습 시간으로 대치되는 파행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일반고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여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중국어에 대한 ‘선수 학습 경험과 선수 학습 기간’, ‘중국어 교과목을 제2외국어로 선택한 이유와 흥미도’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대상은 경기도 수원시 내 평준화 고등학교이며 학업성취도 수준이 중위권에 해당하는 H고교(80명), M고교(80명)와 비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이 우수한 B고교(80명)인 3학년생 240명이며, 설문 조사 및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의 중국어 선수학습경험을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4〉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생들의 중국어 선수학습경험

학교	중국어 학습 경험	학생수	백분율
B고교 (비평준화 지역)	유	62	77.5
	무	18	22.5
H고교 (평준화지역)	유	35	43.8
	무	45	56.2
M고교 (평준화지역)	유	43	53.8
	무	37	46.2

몇 년 전부터는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중국어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수학습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초·중학교 학생시절 중국 현지에서 유학을 한 경우, 방학 중에 단기 어학연수를 한 경우, 중학교에서 교과재량활동으로 1년간 주 1~2회 공부한 경우, 또는 중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 시간에 공부를 한 경우, 고등학교 내신관리를 위하여 학습지나 개인 과외, 일반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경우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표 4〉와 같이 학교에 따라 중국어 선수 학습 경험에 대한 비율이 크게는 30%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할 때 내신 관리를 위하여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선수 학습 경험이 있는 제2외국어 교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위 3개교의 2009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학교 평균이 B고교 316점, H고교 235점, M고교는 257점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선수학습 경험도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둘째, 현재 일반고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 중 입학 전 중국어 선수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 140명을 대상으로 선수 학습 방법 및 학습 기간을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5〉 중국어 선수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습 방법 및 기간

대상인원 : 140명, 복수 응답 가능

	학습지 및 학원	개인과외	재량활동 (정규교육과정)	방과 후 특기적성	기타
6개월 미만	16	2	0	5	0
6개월~1년	15	3	129	19	5
1년~2년	5	1	0	2	3
2년 이상	2	0	0	0	2
계	38	6	129	26	10

대부분의 학생들이 〈표 5〉와 같이 입학 전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인 재량 활동시간과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을 통하여 선수학습을 하였으나, 학습지 및 학원 수강, 개인과외 등 사교육을 통하여 선수 학습을 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소수의 학생들은 방학 중 단기 어학연수와 중국에서의 1년 이상의 장기 유학을 통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중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중국어가 제2외국어 교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일반고에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6〉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이유

중국어 선택 이유	인원	비율(%)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14	5.83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	15	6.25
내신 관리를 위해서	209	87.1
기타	2	0.82

위 조사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중학교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 〈표 2〉에서는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와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의 2개 항목을 선택한 합의 비율이 94.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내신 관리를 위해서’는 4.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6〉에서는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와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의 2개 항

목을 선택한 합이 비율은 12.1%에 불과한데 비하여 ‘내신 관리를 위해서’ 중국어를 선택한 비율이 87.1%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있어 공부는 내신 관리 및 대입수능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일반고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해보니 <표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7>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중국어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인원	비율(%)
매우 높다	13	5.4
높다	19	7.9
보통이다	43	17.9
낮다	125	52.1
매우 낮다	40	16.7

중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표 3>은 ‘매우 높다’와 ‘높다’의 2개 항목을 합한 비율이 6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19.4%, ‘낮다’와 ‘매우 낮다’의 2개 항목을 합한 비율은 1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표 7>은 ‘매우 높다’와 ‘높다’의 2개 항목의 합이 13.3%, ‘보통이다’ 17.9% ‘낮다’와 ‘매우 낮다’의 2개 항목을 합한 비율이 68.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중학교에선 매우 높았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이렇게 현저하게 하락한 것이다.

다섯째, 고등학교 진학 후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중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는 이유

흥미도가 낮아진 이유	인원	비율(%)
대입수능과 무관하여	166	69.2
배우기 어려워서	40	16.6
장래성이 없어서	15	6.4
기타	19	7.8

중국어 수업에 흥미도가 낮아진 이유로 ‘대입수능과 무관하여’가 69.2%인 것을 보면 고등학생들의 수업에서 대입수능의 비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배우기 어려워서’가 16.6%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중 3때의 학습 효과가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 거의 상실되어,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아닐지라도 학업성취도가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배우기가 어려운 외국어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적고, 현재 극히 소수의 대학에서만 대입수능의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제2외국어 영역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굳이 중국어를 공부할 시간적 여유나 또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실상 고3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2외국어 수업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하는 등 파행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일반고에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 수가 증가하여, 현재 경기도 내 중국어 교사는 500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양적 팽창 속에서 대입수능에서 중국어를 선택하여 응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4년간 제2외국어/한문 영역 대입수능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9〉 최근 4년간 제2외국어/한문 영역 대입수능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응시교과목	2006	2007	2008	2009
독일어 I	8,706	6,564	4,559	3,853
프랑스어 I	7,449	5,648	4,849	4,296
스페인어 I	1,369	1,548	1,920	2,540
중국어 I	15,362	15,940	14,024	13,445
일본어 I	42,758	38,009	31,349	27,465
러시아어 I	566	826	1,283	1,918
아랍어 I	2,184	5,072	13,588	29,278
한문	18,568	17,236	17,625	16,908
계	96,962	90,843	89,197	99,703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입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대부분의 교과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대입수능 전체 응시자 수(58만 8,282명)

에 비해 제2외국어에 응시하는 수험생수(99,703명)가 17%를 넘지 못했고, 특히 중국어 영역 응시자수(13,445명)는 2.3%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교육현장에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대입수능에서 중국어선택을 기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현상은 전국에서 아랍어를 지도하는 학교는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수능에서 아랍어를 선택하여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2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아랍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아랍어는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약간의 시간만 투자를 하여도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즉 아랍어의 대입수능 문제가 다른 제2외국어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유로 아랍어 선택이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표 4〉 ~ 〈표 8〉의 설문 조사의 결과와 〈표 9〉의 내용을 토대로 일반고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현황을 고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 중국어에 대한 선수학습 경험 비율이 중학생들(21.9%)보다 고등학생들(58.3%)에게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선수학습의 방법은 중학교 정규교육과정인 재량 활동시간과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상당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소위 조기 교육을 받았다. 특히 소수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다녀온 점은 중국어가 제2외국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등학교 입학 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 입학 전 중국어 선수학습 경험 비율이 58.3%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학생들이 약 17%나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어 I’은 중학교 ‘생활중국어’와 어휘와 문법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너무나 의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언어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연속성인데, 중학교 3학년 때 1년간 학습 후 1~2년의 기간이 지났고, 오로지 내신관리와 대입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는 일반고 학생들이기에 중국어를 별도의 시간을 내어 공부 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 2, 고 3이 되어 대입수능과 관계가 없는 많은 학생들에게 중국어는 흥미도 없고, 배워야 할 이유도 없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외국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중국어를 선택한 이유로 ‘내신 관리를 위해서’라고 87.1%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중학생들의 중국어 선택이유 중 ‘중국어가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와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의 2개 항목을 선택한 합의 비율인 94.4%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역시 ‘높다’와 ‘매우 높다’의 2개 항목의 합의 비율이 중학생들은 69.4%, 고등학생들은 13.3%로 56.1%라는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대입수능과 무관하

여’(69.4%)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넷째,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4년간 ‘제2외국어/한문 영역 대입수능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대입수능 전체 응시자 수(58만8,282명)에 비해 제2외국어로 응시하는 수험생수(101,712명)가 17%를 넘지 못했고, 특히 중국어 영역 응시자수(13,445명)는 2.3%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교육현장에서 중국어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대입수능에서 중국어선택을 기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설문조사 대상인 3개교에서도 중국어를 배우는 인문반 학생들 중 2010년도 대입수능에서 중국어 영역에 응시예정인 학생들은 H고 183명 중 2명, M고 135명 중 3명, B고 123명 중 3명에 불과하였다.

아랍어의 대입수능 문제가 다른 제2외국어 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아랍어를 지도하는 학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수능에서 아랍어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2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대입수능위주로 공부하는지를 명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처럼 일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내신 관리와 대입수능은 학교생활의 전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하에서 제1외국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이기에, 대입수능에서 중국어 영역 응시자수(13,445명)가 2.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중국어 수업은 대입수능을 위한 자율학습 시간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2009년 이후 대입수능에서 외고 학생들의 등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중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고 인문계 학생들의 중국어 영역 응시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0년부터 각 급 학교의 학교장에 의한 교육과정 구성에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어 학교의 지역적 특수성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20%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증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교육현장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대입수능의 주요 교과에 시간을 더 할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대입수능과 관계가 적은 중국어 교과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낮아져서 현재보다 수업이 더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 교육과정 현황 고찰

‘어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외고는 현재 경기도에 9개교(수원외고, 동두천 외고, 성남외고는 공립, 기타 용인외고를 비롯한 6곳은 사립)가 있으며, 외고 학생들은 외국어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교과에서도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외고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을 통하여 전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외고 학생들이 1학년에 비해서 3학년이 되어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외고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고의 중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중국어를 전공 교과로 선택한 이유’,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 ‘흥미도가 낮아진 이유’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대상은 경기도 S외고 중국어과 1학년 학생(60명), 3학년 학생(60명) 120명이며, 설문 조사 및 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외고의 제2외국어 관련 교육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어 교과 이외의 제2외국어 교과로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전공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입학 전형 시 자신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 일반고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외고에서는 1학년에서도 중국어 교과에 대한 수업 시수가 높고,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전공한 외국어학과의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S외고 중국어과 교육과정은 <표 10>과 같다.

<표 10> S외국어고등학교의 중국어과 교육과정

	과 목	총 이수단위
제1학년	문법(2), 회화(4)	6
제2학년	독해(5), 청해(4)	9
제3학년	실무중국어(4), 작문(3)	7

<표 10>과 같이 외고 중국어과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4~6단위를 학습하는 것에 비해 22단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기에 3학년이 되면 중국어 및 중국에 관해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둘째, S외고 중국어과 1학년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전공 교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중국어교과를 전공 교과로 선택한 이유

	학습경험 有	학습경험 無
배웠던 경험이 있으므로	19(31.7%)	·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32(53.3%)	3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	3(5%)	·
기타	1(1.67%)	2

외고 학생들은 외고 입학 전형 시 전공 교과를 선택하여, 입학 후 그 전공 교과를 집중적으로 배운다.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에 대한 자긍심이 높으며,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집단들이기에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 생각된다. 〈표 11〉에서도 중국어를 전공 교과로 선택한 이유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와 같은 긍정적인 대답이 높았으며, ‘배웠던 경험이 있으므로’ 역시 입학 전 상당한 수준의 선수 학습을 통하여 중국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에 대한 결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생각된다. 〈표 6〉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와 ‘중국어 강대국이 될 것 같아서’의 2개 항목을 선택한 합의 비율이 12.1%에 불과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셋째, 외고 중국어과 학생들이 입학 후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학년(60명)과 3학년(60명)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

중국어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1학년 학생수(%)	3학년 학생수(%)
매우 높다	29(48.3)	15(25)
높다	13(21.7)	18(30)
보통이다	18(30)	25(41.7)
낮다	0	2(3.3)
매우 낮다	0	0

외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교과이기에 1, 3학년 모두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높다’와 ‘높다’의 2개 항목을 선택한 합의 비율이 1학년생들은 약 70%, 3학년생들은 약 55%로 그 차이가 15%가 되었다. 흥미도가 ‘보통이다’에 대답한

학생들은 반대로 3학년 학생들에게서 11.7%로 증가하였다. 물론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같은 대상이 아니고, 1, 3학년들의 학업성취도 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수치를 일반화시키는데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 수치들의 차이가 상당히 큰 수이기에 외고 학생들도 3학년이 되면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표 12>의 조사에 응한 3학년 학생들 중 3학년이 되어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는 이유

대상인원 : 40명, 복수 응답 가능

흥미도가 낮아진 이유	인원	비율(%)
대입수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적어서	22	55
교재가 너무 쉬워서	2	5
장래성이 없을 같아서	9	22.5
학습자료 부족	2	5
기타	5	12.5

<표 13>에서 1학년 때에 비해서 3학년이 된 후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0명 중 40명(66.7%)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낮아진 이유로 외고 학생들 역시 일반고 학생들 <표 8>과 마찬가지로 중국어가 ‘대입수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적어서’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외고 학생들 역시 대입수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상이며, 따라서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적다는 이유로 중국어를 전공하는 외고 학생들조차도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장래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22%가 넘었는데, 이 역시 외고 학생들이 대입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고, 더구나 대학 입학 전형 시 제2외국어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에 학생들에게 중국어가 장래성이 없다고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표 10>의 내용과 <표 11> ~ <표 13>의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외고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현황을 고찰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1학년 외고 학생들은 중국어를 전공교과로 선택한 이유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약 53.3%로 중국어 교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배웠던 경험이 있으므로’는 약 31.7%의 응답이 나왔는데 이 역시 중국어 교육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등과 연계된다고 볼 때 외고 1학년 학생들의 전공 교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둘째, 외고 1, 3학년 학생 모두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매우 높다’와 ‘높다’의 2개 항목을 선택한 합의 비율이 1학년생들은 약 70%, 3학년생들은 약 55%로 그 차이가 15%가 되었다. 흥미도가 ‘보통이다’에 대답한 학생들은 반대로 3학년 학생들에게서 약 11.7%로 증가하였다. 외고 학생들 역시 일반고 학생들처럼 3학년이 되면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낮아졌다.

셋째, 3학년이 된 후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진 이유로 외고 학생들 역시 일반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어가 ‘대입수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 적어서’(55%)와 ‘장래성이 없을 것 같아서’(22.5%)라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일반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고에서도 대입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고,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고, 더구나 대학 입학 전형 시 제2외국어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에 외고의 중국어 전공 학생들도 3학년이 되면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기타사항으로 외고 학생들은 현재 고등학교 중국어과 교육과정에 선정되어 있는 822개의 기본어휘가 적정한가에 대한 물음에 약 95%가 지나치게 적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시청각자료나 문화방면 등의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약 35%나 되었다.

Ⅲ. 중국어 교육의 개선 방향

현재 2009년 3월 기준 경기도 내의 약 97개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중국어’를 교과 재량 교과목으로, 약 290개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채택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선수 학습 경험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교에 따라 약 43%에서 77%로 나타났으며, 소수 학생은 방학 중 단기어학 연수 및 조기 유학에 해당하는 장기 어학연수를 1~2년간 다녀온 학생도 있었다. 중국어가 제2외국어임을 감안하면, 중국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 사회적인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 및 중요성이 중학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반고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대학 입학 전형 시 소수의 대학만이 제2외국어 대입수능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고3때 제2외국어 수업시간이 대입수능을 위한 자율학습 시간으로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고 학생들은 입학 후 자신의 전공인 중국어 및 중국에 대한 전망에서 대단히 긍정적이었으나, 3학년이 되면서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지고, 중국어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도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외고 역시 대입수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중국어가 대입수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제2외국어의 대입수능 점수를 반영한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어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외고가 대입수능을 위한 우수한 일반고로 전락하게 되는 등 외고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중국어 교육의 현황 고찰 및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어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인지를 인식하고, 중학교에서의 중국어에 대한 높은 흥미도가 일반고에서도 지속되어 중국어 수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외고의 ‘어학 인재 양성’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나아가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국어 및 중국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국어 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제2외국어 교육을 대학입시와 연계시키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한국의 입시문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인에 대해 중국어 교사들의 90%가 ‘대학 입시와의 무관함’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치열한 입시 문화를 무시할 수도 없다. 대입수능에서 중국어 영역 응시자의 수가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상황을 도외시킨 채 중국어 수업의 정상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된다.

모든 대학의 학과에서 신입생 선발 시 대입수능의 제2외국어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인문사회계열만이라도 대입수능의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일반고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2010년부터 학교교육과정의 증감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으로 인해 국, 영, 수의 비중이 늘어나면 중국어 교과는 더 파행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대학 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일반고에서 중국어 교육의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제2외국어를 대학입시와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 대학 기관,

대입수능담당부서, 대기업, 중국어 교사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의 국가 발전적 차원에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수출국 1위 국가가 중국이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최다 국가가 일본과 함께 중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

2. 효율적인 교육과정으로의 재편성

중국어 선수 학습 경험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43%에서 77%에 이르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중국어 I’은 중학교 ‘생활 중국어’와 어휘와 문법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고 학생들에게 중국어 수업은 쉽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내신 관리와 대입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는 일반고에서 대입수능에서 아예 응시를 하지 않거나, 응시를 하여도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중국어를 특별히 시간을 내어 공부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중 3때의 학습 효과가 1~2년의 시간이 흐른 뒤 거의 상실된 상태에서, 고 2, 고 3이 되어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아닐지라도 학업성취도가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 및 대입수능에서 중국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중국어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외국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속성의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에 배우는 제2외국어 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기의 교과 재량 시간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다양한 학습 교재의 개발과 그에 따른 학습 콘텐츠의 지원

도시와 농촌,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흥미도 역시 매년 상승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학교 중국어 교재는 《생활중국어》한 권밖에 없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도시와 농촌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학습자들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현재 일반고 중국어 교재에서 기본 필수어휘로 선정한 822개의 어휘는 그동안 현장에서 지도를 하면서 경험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일부 어휘는 필수 어휘로 선정은 되어 있으나, 시중에 출판된 대부분의 교재에서도 취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중국어를 좀 더 친근감 있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현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컴퓨터, 인터넷, 게임, 핸드폰, MP3, 영화, 코미디, 시트콤 등과 관련된 어휘를 필수 어휘에 포함시켜야 한다.

외고 중국어과 학생들은 ‘중국어 학습 시 어떤 영역이 가장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쓰기(65%), 말하기(18%), 듣기(10%), 읽기(7%)라고 응답하였다. 외고 학생들 역시 어려서부터 영상매체에 익숙해진 세대들이라서 표의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중국어를 쓰는 일이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한문 시간에 배우는 번체자와 중국어 시간에 배우는 간체자가 서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므로, 간체자를 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교재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또 ‘중국어 학습 시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72%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각종 영상매체에 길들여져 있어서 한자로 구성된 중국어가 처음부터 어렵다는 선입견을 지닐 수 있으므로, 중학생 및 일반고 학생들에게 학습 주제와 적합한 중국의 음식, 생활풍습, 전통문화 등과 관계된 다채로운 시청각자료의 제공과, 다양한 동영상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간단한 중국어를 사용하여 게임 및 퍼즐놀이 등의 게임을 병행한 수업을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것이다.

일반고 진학 후 또는 외고 3학년이 되어 중국어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진 주요 원인이 대입수능 위주의 공부이겠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알맞은 다양한 학습 교재 및 학습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학습 효과가 더 높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수업 이외의 업무 처리와 학생지도 등으로 교사들 스스로 자료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학습 교재를 처음 제작할 때 그에 알맞은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중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및 경시대회 활성화

무역의존도가 83.5%인 우리나라에 있어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가이고, 남북 관계라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므로, 우리가 중국 즉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어 교육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및 학교 교직원 모두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어에 대한 학력이 높은 일반고의 학생들과 특히 외고의 중국어과 학생들의 중국어 학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각종 경시대회의 개최이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학 주최의 경시대회를 통해 중국어 실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 선발하여 중국어 및 중국 관련 전문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 사회에서 한국에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므로, 중국어 및 중국에 관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개인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시대회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대학 진학 및, 중국 국비 유학 등과 연계하고, 졸업 후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중국과 관련된 기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중국어 전공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5.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 제고

현재 경기도에 34명의 중국인 원어민 교사가 중국어 학습보조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상황은 고등학생들 중 ‘원어민 교사가 필요한가?’에 대해 겨우 12%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원어민 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중국어 어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수업이 기대한 만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수 학습 경험률이 58.3%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라기보다 원어민 교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는 중국 북경사범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그 임용기간이 1년이다. 1년 후에는 반드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원어민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부족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도 약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수업현장에서 학생들과의 공감대 부족 현상으로 연결되므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교수법과 관련된 연수를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한국의 제1 수출국이 중국이기에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 중국어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어 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고에서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절대적인 이유는 내신 관리를 위해서였으며(69%),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는 ‘높다’가 13%로 중학교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는데 흥미도가 낮아진 이유는 대입수능과 무관(69.2%)하기 때문이었다. 최근 4년간 대입수능에서 중국어영역을 선택한 응시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2010년 대입수능에서 중국어에 응시하겠다는 수가 3

개교 인문반의 중국어 선택 학급의 441명 중 8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외고 학생들의 등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고, 2010년부터 학교의 학교장 재량에 의해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중국어 교육의 앞날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외고에서도 1학년에 비해 3학년의 흥미도가 18%로 낮아졌는데, 대입수능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역할이 적어서와 대학 입시에서 대입수능의 중국어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가 소수이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의 중국어 교사들도 중국어 수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학 입시와의 무관함’(90%)이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일반고 및 외고의 수업에서 대학 입시 및 대입수능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어 교육이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토대 위에서 중국어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 교사에 의한 수업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대학 입학 전형 시 최소한 인문사회계열만이라도 대입수능의 제2외국어 점수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획기적인 개선책과 중 3학년과 연계하여 고 1, 2학년 때 제2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학습 교재의 다양화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개발 및 경시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 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중국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중국어 수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 고 문 헌

- 강식진, 안기섭, 유영기(2001). **고등학교 중국어 I**. 서울: 진명출판사.
- 경기도교육청(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경기도교육청(2009).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I)**.
- 교육인적자원부(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II)**.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교육과정 관련 Q&A자료**.
- 김대호(2009. 8. 24). 중국 공산품 210개 생산량 세계 1위. **연합뉴스**.
- 류이근(2009. 4. 15). 중남미 탈달러 움직임 가속. **한겨레신문**, p. 16.
- 맹주익 외(2007). **생활 중국어**.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2008. 8. 12). **새정부 관광산업의 정책방향**.
- 박덕준, 정동수, 최병진(2001). **고등학교 중국어 I**. 서울: 정진출판사.
- 박민희(2007. 7. 15). 중국 외환보유고 첫 2조 돌파. **한겨레신문**, p. 16.
- 박신영(2009. 7. 7). 내수는 기초체력이다. **파이낸셜뉴스**.
- 송창기, 송진영(2001). **고등학교 중국어 I**. 서울: 민중서림.
- 엄익상, 박용진, 최병권, 박신영(2007). **중국어교육 어떻게 할까**. 서울: 한국문화사.
- 엘빈 토플러(1994). **제3의 물결**. 서울: 홍신문화사.
- 엘빈 토플러, 하이디 토플러(2006). **부의 미래**. 서울: 청림출판사.
- 임승규, 정의원(2001). **고등학교 중국어 I**. 서울: 시사에듀케이션.
- 한무희, 윤영근(2001). **고등학교 중국어 교사용 지도서**. 서울: 부민문화사.
- 한무희, 윤영근(2001). **고등학교 중국어 I**. 서울: 부민출판사.
- 함수곤, 김종식, 권응환, 왕경순(2003). **교육과정 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논문 접수 : 2009년 8월 27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10월 4일 / 게재 승인 : 2009년 10월 23일

ABSTRACT

Ways of Improving Chinese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at the Secondary Level in Korea

Hang-Keun Cho(Teacher, Hwahong High School)

In terms of exports, Korea exports the bulk of its products to China.

Economically, this is very important for our nation's development. Therefore, learning Chinese is not really a choice but rather a required subject for obvious reasons.

More than 97 middle schools and 290 high schools offer courses in Chinese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in Gyeonggi Provi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generally do very well when it comes to learning Chinese. They excel more in Chinese compared to other foreign languages. However, after these students enter High School, their drive to study Chinese diminishes significantly.

Most High School students do not have to participate in a second foreign language test. The problem is that the college entrance Chinese exam is becoming more and more difficult.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recently published the liberalization of school curriculum. This policy is expected to affect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at second foreign language classes will decrease in the future.

We must find a way to improve Chinese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satisfy student's requirements, we need to use more various Chinese textbooks and materials.

It is also necessary to refocus on the importance of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national development, Chinese, college entrance exam, a second foreign language, the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urriculum, contest, sympathy